“대승 가르침 따라 불성의 꽃 피우자”

신뇨엔, 2월 28일 월례 법전공
다치카와시 총본산 응현원서
20개국 100여 사원 영상중계
‘지혜 불’로 번뇌 태우는 호마
원주 이토 신소가 의식 집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신뇨엔 용산 서울정사에서 신도들이 법전공 의식에 동참하는 모습.


신뇨엔 원주 이토 신소가 총본산 응현원에서 호마의식을 집전하고 있다.

일본 재가불교 종파인 신뇨엔이 법전공 의식을 올리며 대승의 가르침을 따라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종교법인 신뇨엔(원주 이토 신소)은 2월 28일 일본 도쿄도 다치카와시 신뇨엔 총본산 응현원에서 월례 법전공(法前供)을 봉행했다. 법전공은 매달 28일 부동명왕을 본존으로 호마의식을 올리는 법요다. 신뇨엔은 구원상주 석가모니여래, 십일면관세음보살, 열반법신 대성부동명왕을 삼륜신(三輪身)으로 모신다. 이 중에서 부동명왕은 불교에 귀의하지 않는 고집 센 중생을 귀의시키기 위해 엄한 모습으로 변화한 부처님으로 전한다.

또한 신뇨엔의 주요 의식인 호마(護摩)는 밀교에서 화로를 놓고 유목(乳木)을 태워 부처에게 비는 일로, 지혜의 불로 중생의 번뇌를 태워 없앤다는 의미를 갖는다. 항공엔지니어였던 신뇨엔 개조 이토 신죠(1906~1989)가 1936년 진언종으로 출가해 진언밀교의 법을 이어받고, 승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길을 목표로 수행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신뇨엔은 밀교 의식을 따른다.

이날 법전공은 전 세계 약 20개 국가 100곳이 넘는 신뇨엔 사원에 영상으로 중계됐다. 신뇨엔 원주 이토 신소가 직접 호마의식을 집전하며 사부대중과 함께 번뇌 소멸을 기원했다. 한국지부에 속하는 용산 서울정사와 부산정사, 창원포교소, 제주포교소에서도 신도들이 각 법당에서 의식에 동참해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하고 소원성취를 발원했다.

의식을 마친 뒤에는 개조 이토 신죠가 남긴 1963년 6월 28일자 법전공 법문을 되새겼다. 당시 이토 신죠는 법전공과 호마에 대해 “단순히 인간적으로 그냥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다. 단 위에 여러 공양물을 올리지만 부처님께 올리는 것은 아니다”며 “항상 영계에서 커다란 힘을 보이고 움직여 주시는 호법의 신들, 이분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토 신죠는 이어 “신뇨엔에서는 부처님을 중심으로 호법의 신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 신들은 공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지 않아도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라며 “접심수행(신뇨엔 수행법)과 대승의 정진을 함으로써 상락아정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신뇨엔은 1936년에 생겨난 일본불교 교단이다. 서른 살에 일대 결심을 하고 출가해 교토 제호사에서 수행을 마친 승려 이토 신죠에 의해 창시됐다. 현재는 후계자인 이토 신소가 가르침을 이어 지도하고 있다. 부처님의 유언을 집대성한 〈대반열반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며, 출가수행자뿐만 아닌 재가자를 포함해 모두의 마음의 불성을 꽃피우겠다는 목표 아래 재가교단으로 출발했다.

泰, 부처님 骨사리 친견법회 봉행

사리불 · 목건련 존자 사리 함께 최초 친견 전시

석가모니 부처님의 골(骨)사리 친견 전시가 열린다. 최초로 부처님과 상수제자 두 분의 사리가 함께 전시돼 태국 불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월 23일 태국 일간지 ‘카오소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골(骨)사리 친견법회 봉행 소식을 전했다.

골사리 친견법회는 방콕의 사남루앙 광장에서 봉행된다. 이번 친견 전시는 최초로 부처님 상수제자 사리불과 목건련 존자의 사리가 함께 대중에 공개된다. 부처님 골사리는 인도의 대외 문화 교류 ‘룩이스트’ 정책 일환으로 태국에 이운되었으며 뉴델리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이다

친견 전시는 태국 4개 지역(방콕, 치앙마이, 우본랏차타니, 크라비)을 순회하며 3월 5일부터 8일까지 치앙마이,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우본란차타니,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끄라비에 친견 순회 전시가 예정되어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 골사리(가운데)와 사리불, 목건련 존자의 사리. 사진출처=카오 소드

헤나게시 싱 태국 주재 인도 대사는 “태국으로 이운된 부처님의 골사리는 국외로 반출된 역사가 없다”면서 “골사리를 직접 친견할 수 있는 희귀하고 놀라운 기회가 이곳에 있다. 이번 교류로 양국에 축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국 문화부 장관은 태국에 신성한 유물을 전시할 기회를 준 인도 정부에 감사를 표하며 “인도가 인류를 위한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中, 쓰촨성 댐 건설 반대 시위…티베트인 100여 명 구금

13세기 고대 벽화 품은 왕퇴사 수몰 예정

강경 진압으로 시위대 일부 입원
무소불위 권력… 강도 높은 비판

중국 쓰촨성에서 지역 주민들이 댐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 티베트인 100여 명이 구금됐다. 시위대 중 티베트 스님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25일 홍콩의 ‘자유아시아 방송’은 중국 쓰촨성 지역 주민들이 댐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이다 승려를 포함한 티베트인 100여 명 구금 소식을 보도했다.

중국 쓰촨성 티베트 자치구 더거현 시청 앞에서 1만3920메가와트급 수력발전 댐 건설을 둘러싼 300여 티베트인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수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인 지역은 티베트 자치구와 인접한 쓰촨성 서북부 지역으로 많은 티베트인이 거주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특수 훈련을 받은 무장 경찰을 배치해 물대포와 후추 스프레이, 테이저건 등을 사용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고 체포했다. 티베트 스님을 포함한 티베트인 100여 명이 구금되었으며 체포된 시위대 중 일부는 강경 진압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 이후 중국 정부는 모든 주요 도로를 폐쇄하고 인근 지역 마을과 사원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무장 경찰의 진압으로 쓰러지는 티베트 스님을 부축하기 위해 시위대가 다가가고 있다. 사진출처=모던 도쿄 타임즈

류펑위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시위대 강경 진압과 체포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 중국은 법치국가이다. 중국 법에 따라 자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며 강경 진압 및 체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투오 수력발전 댐 수몰 지역에는 왕퇴사(汪堆寺), 은남사(银南寺), 강다사(康多寺) 등 6개의 불교 사원과 2개의 마을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왕퇴사는 13세기 고대 벽화와 문화대혁명 시기에 파괴되었던 사원을 지역 주민들이 1983년에 재건해 문화·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이다. 현재 300여 명의 티베트 스님이 거주하고 있다. 수몰 예정지에 포함된 두 마을에는 약 2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댐 사업으로 인해 강제 이주 예정이다.

모던 도쿄 타임즈의 리 제이 워커 분석가는 “6개의 불교 사원이 강투오 수력발전 댐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수몰의 아픔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로 티베트인에 대한 공산당의 무차별적인 무력과 공포 정치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호프 보살 보리사에 10만불 보시한 사연

아미타 빌리지 건립 발원
어머니 기리는 마음 더해


왼쪽부터 형전 스님, 권호프 보살.

미국에 거주하는 신심 깊은 불자 호프 보살이 라스베이거스에 아미타 빌리지 건립을 발원하며 10만불(한화 1억3290만원)을 보시해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조계종 해외특별교구는 “호프 보살은 2월 17일 라스베이거스 보리사 주지 형전 스님을 만나 아미타 빌리지 건설 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호프 보살의 아미타 빌리지 건설은 이민자의 삶 속에서 오는 다양한 고민에서 비롯됐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자영업을 하던 호프 보살은 2019년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보리사와 인연을 맺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리사 신도들이 사찰에 모여 고향에 대한 향수와 이민자 삶의 외로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했고, 그 결과 다 함께 모여 살며 서로에 도움을 주는 아미타 빌리지 건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야기만 나눴던 아미타 빌리지 건립을 수면 위로 부상시킨 것이 호프 보살의 원력이었다. 지난해 고인이 된 99세의 어머니를 기리는 마음으로 ‘아미타 빌지리 건립’ 불사에 선뜻 보시금을 낸 것이다.

미주 한국불교에서 불자들이 함께 모여 살기 위해 마을을 건설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형전 스님은 보리사 가까운 곳에 땅을 매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보리사 주지 형전 스님은 “불제자가 한 가족이 돼 한국 불교문화를 알리고, 이민자들을 위한 안락정토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호프 보살은 “제가 먼저 시작했지만, 이것을 보고 더 많은 불자가 동참해 우리들의 염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김내영 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